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선 철학사전

철학사상연구회서 펴내... '학문 다원화의 출발점' 평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2년7개월의

작업끝에 총 3000 항목을 담은

「철학대사전」을 펴냈다.

사회주의권에서 정평 있는

「철학사전」과 「철학자사전」 그리고

중국의 「辭海」를 번역, 보완한

이 사전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철학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2년7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철학대사전」(동녘)을 펴냈다. '우리시대의 철학에 맞는' 사전을 펴내고자 텍스트를 선정하고 번역하기 시작, 4·6배판 총 1,868 페이지에 3000항목을 담은 두툼한 사전이 탄생된 것. 이 사전은 영미철학 위주의 기존 철학사전에 비해 본격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통 철학사전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물론·변증법적 관점 충실한 텍스트 구성

이 사전의 짜임새는 크게 서양철학편(1,484페이지)과 동양철학편(185페이지), 그리고 6가지의 찾아보기(90페이지)로 나뉘는데, 3종의 텍스트가 그 중심축대를 이룬다.

서양철학편에서 주요 텍스트로 삼아 완역한 것은 세계적으로 정평있는 동독의 「Philosophisches Wörterbuch」(철학사전)(만프레트 부어, 게오르크 클라우스 편, 1964년 동독의 에치클로페디출판사에서 초판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14판에 이르러 동구권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사전으로 꼽힌다. 원서의 서문에는 "이 사전이 핵심을 이루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제법주,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제부분에 관한 설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사회과학, 사이버네틱스, 기호론, 정보이론 등 최신 첨단과학이론까지 포괄했다.

서양철학편의 또다른 텍스트인 「Philosophenlexikon」(철학자사전)(에르하르트 랑게, 디트리히 알렉산더 편)에서는 중요한 철학사적 인물 142인을 추려서 인명항목에 담았다. 앞의 「철학사전」자매편으로 1982년 디즈

출판사에서 나왔다. 철학사상이 각 철학자들의 사고와 행동 속에서 어떻게 형성·발전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들의 업적을 유물론적·변증법적 관점에서 사회사의 맥락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여느 인명사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동양철학편에서 텍스트로 삼은 중국의 「辭海」(사해편집위원회 편)는 1936년 간행된 적이 있으나 毛澤東의 지원으로 수정·보완, 1980년 3권본과 20분책으로 완간된 백과사전이다. 그 중 철학분책에서 중국철학사와 經學史의 관련항목을 번역했는데, 역사적 전거에 의한 정확하고 명료한 서술이 특징적이다.

한편 한국철학부문의 주요 개념과 인물에 관한 항목은 철학과 사회의 연관에 그 초점을 두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직접 집필했다. 이밖에 외국어인명 및 인명·문헌 찾아보기, 분야별 찾아보기 등 6가지의 찾아보기가 이 사전의 쓰임새를 더욱 높이는 구실을 한다.

이같은 짜임이 완성되기까지 구체적인 작업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들은 어김없이 있었다고 제작을 맡았던 동녘출판사의 이진복사장은 밝힌다. 사전제작에 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정열로 밀어붙였다"는 것. 70여명의 번역인원이 전공별로 해당항목을 묶어 전달했고 특수항목은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며, 번역원고는 다시 여러차례의 교열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 올림말이 내용상 여러가지 의미로 번역되는 경우는 편집회의를 통해 최종 번역어를 결정했다고. 예컨대 Funktion이란 용어는 우리말로 '함수' 또는 '기능'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올림말인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환경과는 다른 사회주의권에서 형성된 개념을 적절한 우리말로 처음 번역해내는 일도 수월치 않았다는 얘기도.

한계성불구 마르크스주의 참이해 도움될 듯

어렵사리 탄생된 이 사전을 놓고 편집책임 을 맡았던 박정호씨의 문제점 지적은 신랄했다. "우리의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직접 집필한 것이 아니라는 약점을 인정한다. 또 서양철학편과 동양철학편의 분량이나 서술방식,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호씨는 "우리시대에 맞는 철학에 대한 진지한 요구들이 이 사전이 충족시켜 줄 것이며, 단순한 개념설명 위주의 다른 사전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이 사전으로 길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에 대해 車仁錫교수(서울대)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직도 우리와는 대립되는 세계관,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이데올로기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사전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주의권 사람들이 어떤 이념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들의 정치·경제를 이끌고 있는지 알기 위한 학문적 연구의 기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의 말을 전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에 입각한 「철학대사전」에 대해 李明賢교수(서울대)는 일단 평가를 유보하는 입장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일관된 관점이 철저히할수록 오히려 객관적인 철학사고를 방해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철학사전으로서의 평가받을 만하나 철학사전 자체로서 "좋은 사전"이 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아무튼 일관된 시각으로 정리된 「철학대사전」의 탄생은 다원주의를 향하는 우리 사회의 학문적 시공간을 더욱 넓혀주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기자

비판커뮤니케이션의 사전식 입문서

朴明珍 엮음 「批判커뮤니케이션과 文化理論」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야기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는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의 기본개념과 용어들을 사전적 체계로 상세히 풀이한 안내서 「批判커뮤니케이션과 文化理論」이 출간됐다. 1985년 영국에서 출간된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을 기본텍스트로 삼아, 이 책에 빠져 있거나 설명이 미흡한 항목 50여개를 새로 집필, 보완하여 가나다순으로 다시 배열했다.

비판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론과 개념 해설에 치중하는 한편, '기호학' '사회화' '사이버네틱스' 등 기존학문의 영역에 포함되는 개념들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항목 해설에 있어 개념들간의 다양한 상호관계와 '잠재적 의미'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고, 연관개념을 '참조항목'으로 소개함으로써 단편적인 개념이해가 개념들간의 전체적인 의미망 이해로 지양되게끔 배려한 것도 이색



적이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입문자들이 흔히 겪는 '방향찾기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나침반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으로서, 비교적 낯설은 문화와 비판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전반을 조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권말에 참고문헌의 상세한 서지정보를 수록해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국문 및 영문 색인을 따로 작성해 덧붙였다.

나남 / A5신 / 392면 / 6500원